

쓰지카와마치는 유명한 일본의 학자인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(1875-1962년)의 출생지입니다. 그가 유소년기를 보낸 집은 현재 후쿠사키시가 소유하고 있으며,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.

야나기타는 각지의 민간 전승 연구에서 특히 '요괴'에 관한 전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근처에 있는 쓰지카와야마 공원에는 많은 요괴상과 두 개의 움직이는 요괴 명소가 있습니다. 명소에서는 15분마다 갓파(강에 사는 요괴)가 연못에서 나오고 몇 분 후에는 날개 달린 '텐구'가 작은 탑에서 튀어나옵니다. 공원 내에는 각 요괴상에 대한 해설과 그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재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